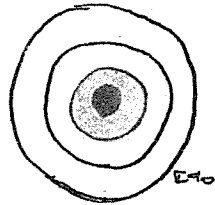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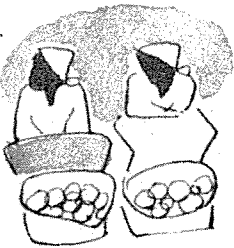
주부교실

# 임신과 태아 발육



임신은 여성에게겐 최대의 중대사(重大事)다. 어떠한 하나님께서 처음 우주와 인간을 창조할 때에 여성에게 부여한 최대의 역할이 이것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많은 여성들이 임신에 대한 지식이 너무 빈곤하다. 이로 인해서 함부로 몸을 가누다가 무서운 병에 걸리기도 하고, 유산(流産), 조산(早産)을 일으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도 하며, 이처럼 엄청난 결과는 아니라도 임부(妊婦)의 체격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일도 허다하다.



## ◆ 임신 1개월

○아직 몸의 형태가 확실치 않다. 아가미나 꼬리같은 것이 있을뿐, 목도 손발도 없고, 머리에서 몸으로 연결된 이두신(二頭身)의 형태다. 크기는 길이가 4밀리에서 7밀리정도, 무게는 12그램정도다.

○용모(絨毛)의 일부는 자궁벽에 파고 들어가 모체의 영양분을 흡수하기 시작하고, 태아(胎芽)를 키우기 시작한다.

### 모체의 변화

- 월경이 없어진다.
- 젖꼭지의 색이 변한다. 갈색에서 검은 빛으로 점점 변해 간다.
- 체온이 올라간다. 아침에 일어나누워에는 36도 7분에서 37도 정도. 오후에는 37도에서 더 올라간다.
- 몸이 노근하고, 피로하며, 식성이 변한다.

## ◆ 임신 2개월

### 태아의 발육

○몸의 형태가 보이기 시작한다. 머리가 생기고 꼬리는 짧아지고, 눈·귀·입의 부분이 점점 형태가 들어난다. 남아성의 결정은 이미 되어 있으나, 구분할 수는 없다.

○태아는 키 3센치, 무게 42그램 정도로 크다.

### 모체의 변화

○자궁이 커지기 시작하고, 새알크기만 해진다.  
○입덧이 나기 시작한다. 그 나타나는 방법은 여러가지이나, 대체로 다음과 같다.

- ① 몸이 노근하다.
- ② 위가 막힌것 같고, 속이 비었을때 구토증이 있다.
- ③ 눈침이 나온다. 음식의 냄새가 진해 진다.
- ④ 좋은 음식, 싫은 음식이 뚜렷히 구분되고, 즐린다.

물론 아무런 증세가 없는 사람도 있다. 심한 사람은 하루 1~3번, 위속의 것을 모두 토해낸다. 이때는 의사의 지시를 받도록 한다.

○유선(乳腺)이 발달하여 유방이 커지고, 젖꼭지나 그 주변은 빛이 더욱 짙어지며, 민감해지고, 유방전체가 아픈것 같기도 하다. (그림 참조)  
○소변이 자주 마렵다. 이것은 방광(膀胱)이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분비물이 는다. 우유빛 분비물이 점점 늘어난다.



태아의 발육

- 사람의 형태가 확실해지고, 남녀의 구별도 될수 있다.
- 꼬리는 더욱 짧아지고, 끝내는 없어지며, 내장(內臟)이 생기기 시작한다.
- 태아의 주변에 양수(羊水)가 고이고, 태아는 양수에서 떠다닌다.
- 키는 7~9 센치, 무게는 20그램 정도가 된다.

모체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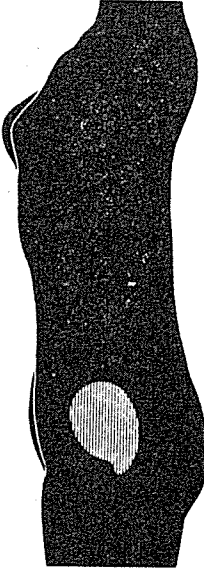
- 자궁크기는 주먹만하게 된다.
- 입덧이 계속된다. 사람에 따라 낫는 경우도 있다.
- 겉으로 보기에는 아랫배가 볼른것 같지 않으나, 모체는 배가 불러 율을 느낀다.
- 오줌이 자주 마렵고, 변비가 되던가 변이 풀려진다. 이것은 직장이 압박을 받기 때문.

태아의 발육

- 인간의 형태가 모두 갖추어진다. 얼굴에는 슈털이 난다.
- 태아의 운동이 꽤 활발해지고, 손발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
- 태아의 자궁벽은 탯줄로 연결된다.
- 키는 16~18센치, 무게는 120그램 정도가 된다.

모체의 변화

- 자궁의 크기가 애기 머리만하게 된다.
- 겉보기엔 그렇게 배가 볼른것을 찾아내기 어려우나, 아랫배를 누르면 단단한 자궁이 만져진다.  
(그림 참조)
- 발뭇금치와 허리뼈가 썩기는것이 느껴진다. 이런 증상은 자궁이 커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므로 걱정할것이 못된다.
- 젖꼭지는 더욱 색깔이 짙어진다.



## ◆ 임신 5개월

### 태아의 발육

- 머리털과 손톱이 생기고, 손발의 운동이 기민해져서 그 태동(胎動)이 느껴지게 된다.
- 몸전체에 부두러운 솜털이 돋는다.
- 심장 활동이 활발해지고, 모체의 배에 대고 청진기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
- 이두신이 삼두신(三頭身)이 된다.
- 키는 25센치, 무게는 250그램이 되고, 머리는 제란크기 만해진다.

### 모체의 변화

- 자궁의 크기가 축구공 크기만해진다.
- 겉으로 보기에도 배가 불른것이 보인다.
- 전신에 피하지방(皮下脂肪)이 늘고 복벽(腹壁)이 두꺼워지며, 유방도 커진다. 몸무게가 매주 3백그램씩 늘어간다.
- 입덧이 없어지고, 식욕이 나며, 기분도 좋아진다. 유산(流産)의 위험은 없어진다.

## ◆ 임신 6개월

### 태아의 발육

- 몸의 균형이 잡혀진다.
- 눈썹·속눈썹이 분명해지고, 머리털은 질어진다.
- 팔걸도 튼튼해지고, 몸의 표면 전체에 태지(胎脂)라고 하는 흰 기름기가 붙는다.
- 자궁안에 꼭 차 있는 양수의 양에 비해서 태아가 너무 작기 때문에 태아의 자세가 자주 변하고, 때로는 태아가 거꾸로 뒤집히는수도 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못된다.
- 키는 약 30센치 무게 650그램이 된다.

### 모체의 변화

- 6개월 말경이 되면 자궁은 배꼽높이 만큼 올라온다.
- 다리의 정맥(靜脈)이 부풀어서 뱀 지나간 자리같이 된다. 때로는 아픔을 느끼기도 한다. 서서 오래 일하지 않도록 하고, 자주 누워서 이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
- 태동이 들린다. 자궁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태아가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진다.

◆ 임신 7개월

**태아의 발육**

- 피하지방(皮下脂肪)의 발달이 아직 불충분하기 때문에 몸 거죽이 가는 주름 투성이지만, 생활기능은 조금씩 정돈되어 간다.
- 사내애기는 벌써 고환(睪丸)이 음낭(陰囊)안으로 들어간다.
- 이때 출생하게 되면 잠간동안은 스스로 호흡하고 울기도 하지만 젖을 빨수있는 능력이 없기때문에 마실수가 없어 밖에서는 자랄수가 없다.
- 키는 약 35센치, 무게는 약 1,000그램.

**모체의 변화**

- 자궁저(子宮底) 길이는 21~23센치가 되고, 배꼽위로 손가락 두개를 옆으로 포갠 높이만큼 자궁이 올라와 있다.
- 하반신(下半身)의 정맥이 부풀어서(靜脈瘤), 다리에 부종(浮腫)이 오고, 켕기기도 한다. 임신체조를 하면 예방이 된다.
- 다리나 허리나 등이 쉬 피로해진다.
- 이러한 증상들은 태아의 무게와 하반신의 혈액순환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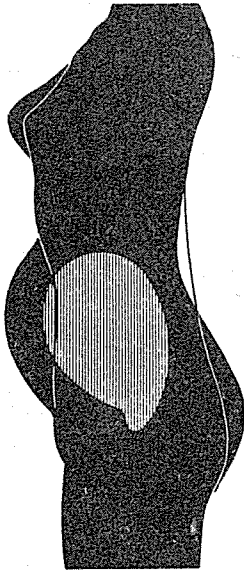
◆ 임신 8개월

**태아의 발육**

- 피부색은 붉은기가 있고, 전신에 부드러움 솜털이 나 있다.
- 얼굴도 주름투성이어서 마치 늙은이 같다.
- 자궁속에서 거꾸로 뒤집혀 있던 태아도 저절로 머리를 아래로 하고 바른 위치로 돌아간다.
- 조산(早産)하게 되더라도 어느정도 생활력이 있어, 전문적인 시설(이를테면 인공육아기 같은 것)이 있는데서 키우면 자랄수 있다.
- 키는 약 40센치, 무게는 1,500그램 정도.

**모체의 변화**

- 자궁저 길이는 24~26센치가 되고, 자궁의 높이는 배꼽과 명치의 중간에 오고, 배꼽은 튀어나와 평평해진다.
- 아랫배가 수에서 넓게 퍼져서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팽창된 뱃가죽의 피부에 임신선(妊娠線)이 생긴다.
- 태동이 더욱 요란해 진다.
- 뱃속이 무거워지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붓는다.
- 아랫배의 중앙선(中央線)과 젖꼭지 그리고 그 언저리, 외음부(外陰部)는 거의 검은색으로 변해 있다.
- 그밖에 얼굴, 특히 이마와 입, 눈의 둘레에는 반점(斑点)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대부분은 분만후 없어진다.
- 태동은 더욱 심해진다. 뱃속이 흔들리는것 같이 된다. 심리적으로 정서불안정(情緒不安定) 상태가 되어 신경질이 늘고 성질을 잘 부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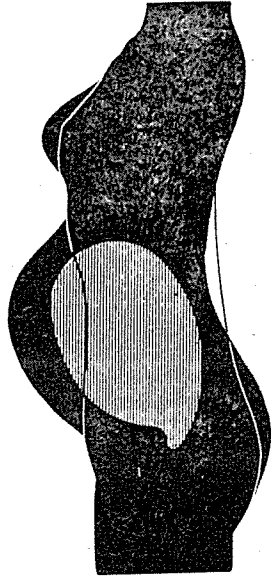
## ◆ 임신 9개월

### 태아의 발육

- 피부의 붉은 빛이 많이 없어진다.
- 얼굴이나 몸의 슈털이 없어진다.
- 피하지방의 발육이 좋아지고, 잔주름도 없어지며, 갓난애기같은 깨끗한 살갗이 된다.
- 태지(胎脂)도 빠져버린다.
- 태아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이때 분만하면 충분치는 않지만 키울수 있다.
- 사람다운 형태가 완전히 갖추어진다.
- 키는 약 45센치, 무게는 약 2킬로그램.

### 모체의 변화

- 자궁저 길이는 27센치에서 29센치. 자궁의 높이는 명지에서 3센치 아래쪽(손가락을 옆으로 4개포겐 거리)까지 올라가 있다.
- 위(胃)가 땡기고, 숨이 가빠진다. 이것은 자궁이 커져서 뱃속의 공간을 모두 차지하기 때문에, 위·폐·심장등이 모두 치받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증상이다. 숨은 어깨로 쉬게 된다.
- 대하(帶下)가 심해진다.
- 소변이 자주 마렵고, 소변을 본뒤 덜 배설한것 같은 느낌이 든다.
- 유방을 꼭 누르면 묽은 젖이 흐른다.
- 초산부(初産婦)는 태아의 위치가 고정되기 때문에, 이뒤 그 위치가 변하는수는 없다.
- 질(膣)이나 외음부가 유연하게 되어서 분비물(分泌物)이 더욱 늘어가고 끈적끈적한 대하가 계속 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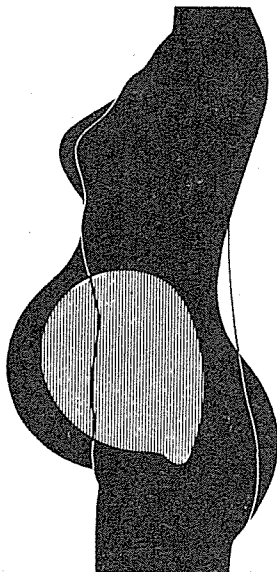


### 임신중독(妊娠中毒)에 주의 해야

임신 8개월이후부터 나타나는 부종이나 단백뇨(蛋白尿) 또는 혈압의 상승은 그것이 아주 가벼운 증세라도 임신중독증의 하나로서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사람에 따라서 자각증세가 없는수도 있다.

부종이 나타나고 오줌이 줄어들고, 오줌에 단백이 나오고, 부종이 다리뿐이 아니라 전신에 나타나고, 혈압이 최고 150이 넘으면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치료는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것이 원칙이다. 약물치료로서는 큰 효과가 대하기가 어렵고, 식사요법과 안정요법이 추가 되어야 한다.



### 태아의 발육

○ 피부에 광택이 나고, 토실토실해져서 애기 같은 귀여움이 갖추어진다.

○ 손톱은 손가락보다 더 깊게 자라고 머리털도 꽤 자라서 언제 출산해도 될수있는 상태가 된다.

○ 출생하면 커다란 소리로 울고, 젖꼭지를 찾아 빨며, 젖을 삼키고 운동도 할수있는 능력을 모두 갖추게 된다.

○ 4개월째부터 생긴 태반(胎盤)은 두께 1센치, 직경 8센치 밖에 안되었지만, 태아와 함께 자라 두께 2센치, 직경 20센치가 되고, 무게는 5백그램이나 된다.

○ 태아의 키는 약 50센치, 무게는 3킬로정도.

○ 출생시의 아기들의 표준체중은 사내아기 3.15킬로그램, 계집아기 3킬로그램이다.

### 모체의 변화

○ 자궁저 길이는 30~35센치정도가 된다. 자궁의 높이는 오히려 내려간다.

○ 발뒤꿈치가 켕기고, 허리가 무겁고, 팽팽하며, 때때로 뱃속이 멎기기도 한다.

○ 소변이 자주 마렵고, 덜 눈 느낌이다.

○ 끈적끈적한 분비물이 더욱 많이 나온다.

○ 자궁이 내려감에 따라 가슴의 갑갑증이 겹치고, 기분이 좋아지며, 식사도 잘 하게 된다.

○ 아랫배가 앞으로 튀어 나오기때문에 걸음걸이가 기우뚱거리지고, 몸의 중심이 잘 맞지 않는다.

○ 뱃속이 멎는것이 자주 일어나면 출산이 가까워진 증좌다.

〈이 영 속〉